

“군공항 이전과 연계 결정이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

이용섭 시장이 밝힌 민간공항 통합 해법

시·도 동반성장 위해 통합 바람직
4자협의체 논의로 해결 방안 결정
특별법 개정·정부 지원 최선 노력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오후 1시 30분 열린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실상 '선(先) 군 공항 이전 협의, 후(後) 민간공항 이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의 뜻에 따르면 시·도 간 소모적인 오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와 정부(국방부, 국토부)가 포함된 '4자 협의체'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이 전남에서 태어났으며 28세가 될 때까지 전남에서 보냈다는 개인사까지 꺼내놓았다. 자신의 이날 선택이 자칫 오해를 낳아 '모처럼 형성된 시·도 상생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깊은 고민이 엮여있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연립방정식에도 비유했다. 이 시장은 "시도 공동 발전을 위해선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시기는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물론 시·도 상생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전남도와 함께 군 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도 털어놓았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 중 절반이 넘는 55.9%가 이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민간공항의 광주 준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항 이전시기까지 함께 묶어 결정하는 방안이 앞서 말한 XYZ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나리오도 내놨다. 가장 먼저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공항 이전시기에 군 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합의와 연계해 결정하고, 이전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군 공항 이전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중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군 공항이전 특별법 개정과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에도 '광주 군 공항이전 사업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건의해 이번 공항이전 사업의 동력원을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시장에 제안한 모든 계획은 일단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남도를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지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측은 현재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총장 대선 지지도 1위 올랐다

리얼미터·한길리서치 조사
민주 이낙연·이재명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잇따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다. 윤 총장 지지도가 25%를 넘긴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39.1%)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들 빅 3에 이어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도는 5%대 이하에 그쳐 비교가 무의미했다. 홍준표 의원이 5.2%,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4.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인물 없

음'은 5.2%, '잘 모름'은 2.7%였다.

이와함께,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에서는 윤 총장이 28.2%로 집계돼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총장 지지도 중 최고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3%,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로 나타났다. 윤 총장 지지도는 약 한 달 전인 작전 조사(11월 10일, 24.7%)와 비교해 3.5%포인트 올랐고, 이 지사의 지지도는 2.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22.2%였던 이 대표의 지지도는 4.2%포인트 하락했다. 한길리서치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이 극단선택을 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홍준표 의원이 5.4%,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5%를 기록했다. 선호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11.1%, '기타 인물'은 6.3%, 모름·무응답은 4.6%였다.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약속한 시한내 민간공항 이전하는 게 상생정신”

전남도·전남도의회 반응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9일 광주 공항 이전 관련 광주시 입장 발표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시·도 상생, 시·도 행정통합을 외치면서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2021년까지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약속을 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관련 2가지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첫째,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둘째,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지체

국방부·양 시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9일 발표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남도는 “둘은 별개의 사안이다. 민간공항 이전은 합의사항이다. 민간공항을 약속한 시한 내 이전하는 게 상생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역시 “광주시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상생 정신을 포기했다”는 격한 반응을 내놓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 삭감을 결의했다.

명칭항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유감이다. (광주시 발표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발표와 배치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고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현호 기자 khh@



경축
32년만의 쾌거!
월출산 국립공원 “큰골길” 열린다!

2021년 개통 예정
"월출산 명사람방로"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2개년)
코스 5.0km(기찬랜드 ~ 대동제 ~ 큰골 ~ 용암사지)

올 크리스마스 가장 간절한 선물은 '백신'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7) 산타클로스

요즘, 유행하는 유머 가운데 하나로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선물을 주러면 적어도 2주일 전인 오늘은 한국에 도착해야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가 격리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빨간 부츠 대신 흰색 구두, 즉 '백신'을 신고 오면 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백신은 어린 시절 모두가 잠든 밤 선물을 가져오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이제 우리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 된 것이다.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3세기 후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주교로 활동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사업에 사용했던 성 니콜라스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활동들의 영향으로 성 니콜라스 축일에는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풍습이 생겼다.

네덜란드 작가 얀 스텐(1626-1679)의 '성 니콜라스 축제' (1660-1665년 작)는 죽일 하루 전 성 니콜라스가 굴뚝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착한 아이들의 신발에 쿠키나 작은 장난감을 넣어두는 풍습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 속 아이들은 막 성 니콜라스에게서 선물을 받은



얀 스텐 작 '성 니콜라스 축제'

순간인 듯하다.

인형을 품에 안은 소녀는 사랑과 장난감이 든 바구니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고, 형의 품에 안긴 아기도 커다란 생강쿠키를 두 손에 모아 쥐고 있다. 왼편에 선 소년은 선물을 받지 못했는지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를 달래는 누이와 커튼을 들춰서 선물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얀 스텐은 17세기 당시 그림만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탓에 여관을 경영하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 부업을 통해 화가는 여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인간 유형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익살스런 일화들을 유쾌하게 묘사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